



북미·유럽 지역 자율주행 트럭 판매 2040년까지 110만 대로 증가할 전망 “2040년까지의 자율주행 트럭 기술 로드맵과 성장 기회 분석”



출처 : Level 1 and 2 Autonomous Truck Sales to Reach ... Europe, Oct 28, 2020

북미와 유럽 연합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과 시장 트렌드

- **레벨 1** 기능은 중형 및 대형 상용차(medium and heavy commercial vehicle, MHCV) 부문에서 우세한 편이며, 약 45%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음
- **레벨 2** 기능은 2020년 상용화되기 시작함
- **레벨 4** 자율주행 트럭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일반 화물 운송의 6.4%를 차지할 것임
 - 이는 연간 운임 비용 중 47억 5천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임

규정 관련이 더해지면 레벨 1 및 레벨 2 기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까지 예상 누적 판매량 110만 대(침투율 88%)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

레벨 4 트럭은 점진적인 정부 방침, 혁신, 인프라, 사회적 수용에 따라 자율주행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에서 2025년 이후에 상용화될 전망이다

장거리 운송에서 2025년 이후에 자율주행 트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

- 편, 도심 (운행용 트럭)의 경우에는 승용차 부문과 비슷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
 -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하려면 지리적 데이터와 정적/동적인 데이터의 광범위한 매핑 및 분석이 필요하며 협조적이고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저장 및 방송 채널이 개발되어야 함
- 팬데믹으로 트럭 산업에는 운전자 부족, 공황 구매로 유발된 상품 수요의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함
 - 자율주행 트럭은 안전하고 인력 의존도가 낮으며 장거리 운행도 중단 없이 해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음

환경이 달라지더라도 트럭 운송 산업의 OEM과 관련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성장 기회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

- 핵심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와 **제휴**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**인수**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개발함
 - 트럭 운송업의 수익 창출 기회는 OEM 중심 모델에서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
 - **기계학습과 인공지능**, 연구개발(R&D)에 투자하고 규제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함
 - 자율주행 트럭이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문에 주력해야 함
- **제조물 책임, 사이버보안, 데이터 판매** 또는 인프라 보험과 같은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여 현재 자율주행 트럭 배포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함
- 자율주행 트럭의 활용에 대한 **책임 프레임워크** 계획의 개발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업함
- 즉각적인 구현 범위를 보여주며 화물 운송 모델에 대한 자율주행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**활용 사례**를 통해 **자율주행 자동차 비즈니스**를 개발함

(결론) 북미와 유럽 연합 지역에서 **자율주행 기술** 레벨 1 및 레벨 2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트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2040년까지 예상 누적 판매량 110만 대(침투율 88%)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
- 장거리 운송에서 2025년 이후에 자율주행 트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